

#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 연구의 동향: 1998-2017년 국내·국제 학술지 논문 비교

Research Trends of Music for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A Review of Journals Publish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from 1998 to 2017

박혜영, 조미란, 윤은정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음악치료전공

Hye Young Park(legendphy@kosin.ac.kr), Mi Ran Cho(miran122@naver.com),  
Eun Jeong Yoon(wiseyej@naver.com)

## 요약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1998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총 62편의 학술논문을 내용분석 하였다. 발표연대, 학술지 분야, 연구방법, 연구유형, 연구주제, 연령, 장애특성을 분석틀로 하였다. 연구결과, 최근 10년간 국내·외 모두 논문 편수가 급증하였으며, 교육학, 치료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방법에서 국내는 조사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국외는 질적연구와 실험연구가 고르게 분포하였다. 연구유형과 주제를 살펴보면, 국내는 음악흥미와 적성을 주제로 한 인식 및 현황조사 연구가 다수였으나, 국외는 음악중재, 음악지각 및 인지를 주제로 한 음악의 영향과 경험 연구가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연령은 국내·외 모두 성인과 아동청소년으로 조사되었고 노인 대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애특성별 빈도에서 전맹, 저시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반면, 중도나 중복장애는 적었다. 이는 시각장애와 음악에 관한 연구 동향을 설명함으로써 해당 분야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안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 중심어 : | 시각장애 | 음악 | 연구동향 | 학술논문 | 내용분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erform a content analysis on 62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s from 1998 to 2017, in order to review research trends in music and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The framework of the content analysis was based on the year of publication, field of journal, research method, type of research, research subject, participants' age, and factors of impairment.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s have rapidly increased in the last 10 years, and have expanded into the fields of education and therapy. In the research method,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much more frequently in domestic journals, while both qualitative and experimental research were employed on a roughly even basis in international journals. With respect to the type and subject of research, music perception and recent trends on the subject of musical interest and aptitude took up the majority of domestic journals, while international journals focused on music intervention, music perception and cognition with musical influences and experiences. The participants i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s were children, adolescents and adults, while the elderly were not observed. In the factors of impairment, research on people with total blindness or low vision were conducted frequently, but those with adventitious vision loss or multiple impairments were rarely performed. This study could be meaningful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rther studies,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research trends in music and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 keyword : | Visual Impairment | Music | Research Trends | Research Articles | Content Analysis |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8018755)

접수일자 : 2018년 05월 02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6월 12일

수정일자 : 2018년 06월 04일

교신저자 : 박혜영, e-mail : legendphy@kosin.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각장애인은 시각에 제한이 있는 감각장애인으로 제한된 시각 외의 타감각 특히, 청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음악 경험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의 음악적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시각 기능 손상에 대한 뇌의 구조적 혹은 기능적 보상 작용은 청각 피질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데, 이러한 청각적 민감성이 음악적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1]. 국외 많은 연구에서 시각장애와 음악적 능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있는데, 특히 음고 지각에서 시각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절대 음고 비율을 보이고 있다[2][3]. 시각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선천성 시각장애인(5세 이전 발병)이 후천성시각장애인보다 뛰어난 음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4]. 또한 시각장애인은 음변별력, 음악적 성, 음악성취 등에서 일반인에 비해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며[4], 이는 뇌 가소성(brain plasticity)으로 인한 보상 작용으로 설명되고 있다[5].

시각장애인의 음악 인지에 관한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6], 우선 음악과 관련한 시각장애인의 촉각적 표상이 일반인의 시각적 표상과 일치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가 있다[7]. 해당 연구에서는 음악 기본 요소인 음고(높낮이), 음가(수평적 길이), 음량(크기), 음색(패턴)의 시각적 이미지를 점자(Braille)로 촉각화 하여 시각장애인용 음악적성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8]. 반면, Walker(1985)의 연구와 동일한 시각장애인용 음악 적성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adsen과 Darrow(1989)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이 음악의 추상적 정보를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9], 연구자들은 시각적 경험의 제한이 시각장애인의 음악 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는 청각 자극인 음악을 사용하여 촉각적 표상과 시각적 표상의 일치를 보고자 한 것, 즉, 감각의 개별적 특성보다 감각의 통합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10].

국내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음악적 능력(musical ability)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은 편이나, 이에 비해 이들의 특성, 선호 등을 심도 있게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실명시기, 장애정도, 발생원인 등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청지각 능력이 달라질 수 있고, 교육 혹은 경험의 정도 등 여러 변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15], 개인적 변인을 고려하여 음악 반응을 살펴보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시각장애인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합창단, 보컬 밴드, 기타동아리, 관악합주 등)를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성인기의 시각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 여가 생활에서 음악 활동 관련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10], 대부분의 연구는 교육과정 내 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다 [11-13].

청각이 주 매개가 되는 음악은 다른 분야에 비해 시각장애인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지적 부담이 적으므로 많은 이점을 가진다[14]. 국외에서는 음악을 매개로 시각장애 혹은 시각중복장애를 대상으로 음악 활동 혹은 음악치료를 시행한 문헌들이 출간되었다 [16-18].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활동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안되고 있는데 우선, 현실 소재인식과 신체운동성 개발은 음악게임 등을 통해 자신의 몸이 현재 있는 위치를 알고, 어느 방향으로부터 소리가 나는지를 파악하게 하여 소리 소재인식 기능을 촉진시킬 수 있다[19]. 다양한 음악소리는 각기 다른 운동 유형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촉각적, 청각적 자극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음악활동은 시각장애 아동의 움직임을 격려하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20].

뿐만 아니라, 음악활동은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적 기술과 대인 관계적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합창단, 밴드, 또는 소규모의 합주단 등의 음악단체에 참여할 때에는 다른 이들과의 협동이 요구된다. 차례 지키기, 주의집중하기, 협동하기, 지시 따르기, 집단 그룹원들과 함께 문제 해결에 참여하기 등의 사회적 기술은 대부분의 음악집단에 참여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다. 음악에 맞춰 동작을 배우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의 삶에서 유용한 사회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주

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21]. 이처럼 음악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장애로 인한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22] 교육이나 치료, 그리고 재활 현장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적 주제로 다룰 수 있다. 우선, 음악교육 분야에서는 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의 실태 혹은 효과를 조사하거나, 음악성취도, 음악점자 교육, 음악수업지도 등 교과과정에 따른 적합한 교수법을 주제로 다룰 수 있다. 음악치료 분야에서는 악기연주, 음악감상, 노래활동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지, 언어, 운동, 정서, 사회 영역 등에서 발달 혹은 향상의 치료효과를 검증하는 중재 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 음악심리학에서는 감각, 지각, 인지 단계에서 시각장애인이 음악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특성,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뇌과학을 근거로, 시각장애로 인한 감각의 보상작용과 뇌의 구조적·기능적 변화의 매커니즘을 음악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밝힐 수 있다.

한편, 국내·외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Codding의 연구 두 편이 있다[16][19]. 일차 연구는 1924년부터 1978년까지의 음악 교육 및 재활에 대한 연구의 경향을 조사한 것이고, 이후의 연구는 1940년부터 2000년까지의 음악치료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문헌들은 모두 전문 학술지가 아닌 서적 형태로 발간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 전문국제학술지인 “British Journal of Visual Impairment”와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에서도[23] 시각장애와 음악과 관련한 문헌 고찰 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며 국내에서도 동일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음악 관련 교육, 치료, 재활 영역에서의 전망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에 이루어진 시각장애인 대상 음악 연구의 국내지와 국외지의 동향 비교를 통해, 국내 연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국내·외 연구 문화의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연구의 보완점을 점검하고

강점은 부각시켜 국제적 수준으로 교류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시각장애 음악 관련 연구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 II. 연구 방법

### 1. 논문 선정 기준 및 수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을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과 검색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국내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을 찾아보기 어렵고, 동향 연구를 위한 분석 기간 설정 시 특정 주제나 연구시점과 관련한 기간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수행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24],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년간(1998년~2017년)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발간된 학술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국내에서 1998년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음악점자 연수과정이 시작되어, 시각장애인 음악분야의 활성화가 본격화된 시점이다.

둘째, 국내·외 전문 학술지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국외에서도 동료심사(peer review)를 통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국제학술지 학술논문만을 포함하여, 분석 논문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였다. 또한 학위논문의 경우 학위종류나 학위급간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25]의 제언에 따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시각장애의 범위를 장애정도(전맹, 저시력), 실명시기(선천성, 후천성), 중복장애 여부(단순시각, 시각중복)로 설정하였다. 음악의 범위는 음악학습(음악교육, 음악수업, 음악교수 등), 음악중재(음악치료, 음악재활, 음악심리 등), 음악흥미 및 적성(음악선호, 음악능력, 음악성 등), 음악점자, 음악지각 및 인지로 하였다. 이에, 시각장애의 범위에 맞게 음악 범위를 적용하여

적합한 연구들을 포함하였고, 시각장애와 음악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연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넷째, 논문 검색은 데이터베이스 검색과 음악 관련 분야 학술지를 직접 확인하며 검색하는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26].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SAGE journal, JSTOR, Eric, PubMed, Scopus, CINAHL, PsycINFO, EBSCO, ProQuest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국회도서관, DBpia, e-article, KISS, KISTI, NDSL, KOSSDA, 뉴논문, 스킨라, 구글 학술검색 등으로 전자 검색을 수행하였다. 또한 음악교육, 음악치료, 음악심리, 시각장애 등 관련 전문학술지의 전자저널에 수기로 직접 검색하여 접근하는 방법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키워드는 ‘음악(music)’ 관련 단어와 ‘시각장애(visual impairment)’, ‘전맹(blind)’, ‘저시력(low vision)’, ‘약시(partially-sighted)’, ‘선천맹(congenitally blind)’, ‘중도 시각장애인(adventitious/acquired visually impaired)’, ‘정안인(sighted/typical vision) 등의 키워드로 각각 상세 검색이나 결과 내 재검색을 실행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음악점자(music braille)’를 검색하였으며, 중복으로 수집된 자료는 삭제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의 참고 문헌을 검토하면서 새롭게 찾은 키워드 ‘심벌북’으로 검색된 자료도 분석 논문에 포함하였다. 이상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최종 분석 대상 논문 수는 총 62편으로, 국내 32편[표 1], 국외 30편[표 2]이다.

표 1. 국내지 분석논문 목록

번호	연도	연구자	학술지	번호	연도	연구자	학술지
1	2009	신연서,이해균	시각장애연구	17	2014	조윤정,이해균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2	2009	조순이	음악교육연구	18	2015	김건희,김은혜	정서행동장애연구
3	2010	이경희,이해균	시각장애연구	19	2015	박혜영,정현주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4	2011	석용환	시각장애연구	20	2015	박혜영,정현주,박순희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5	2011	신연서,차향미,이해균	시각장애연구	21	2015	이보림	음악교육공학
6	2012	신연서,김건희,이해균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22	2015	정고은,이해균	시각장애연구
7	2013	김미정,박효용	음악교육연구	23	2015	정지영,이미애	디지털융복합연구
8	2013	김선희,이해균	시각장애연구	24	2016	신연서,이해균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	2013	남인숙,정광조,최애나	예술심리치료연구	25	2016	신연서,이해균 김건희	시각장애연구
10	2013	박하나,이해균	시각장애연구	26	2016	양지혜,박혜영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1	2013	석용환	시각장애연구	27	2016	전소연,박혜영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12	2013	송용미,이해균	시각장애연구	28	2017	강래형,홍성규	문화와 융합
13	2013	임형진,박순희	시각장애연구	29	2017	김은주	국악교육연구
14	2013	임형진,박순희	시각장애연구	30	2017	박부경	음악수법연구
15	2014	김홍대,이해균	시각장애연구	31	2017	박혜영	특수아동교육연구
16	2014	박민재	음악교수법연구	32	2017	신연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 2. 연구절차

논문 분석의 틀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분석 영역을 연구방법, 연구유형, 연구주제, 연구대상으로 나누어 재구성하였다[27][28]. 분석 틀의 범주화를 위한 조작적 정의 과정에서 시각장애의 정의와 분류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으며, 대학 교수 2인(특수교육전공, 음악치료전공)과 관련 분야 박사과정생 2명이 자문 및 검토하여 분석 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자료의 분석 방법은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이 방법은 텍스트의 특징을 객관적·체계적으로 범주화하고 수량화하는 기술로 특정 학문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27-29]. 분석 절차는 분석대상 논문 선정, 분석 내용 규정, 범주화(세부 분류 기준) 규정, 수량화(빈도, 시간)의 체계 규정, 결과 해석(경향, 기준, 내용의 상이성 비교)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30].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각자 수집된 논문을 분석 영역에 맞춰 분석 내용을 작성하여 표로 요약하고 이를 연구자들 간 비교하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수정·보완하였다.

## III. 연구 결과

최근 20년간 발표된 연구동향 연구물을 살펴보기 위해 [표 3]에서는 4년간의 구간으로 묶은 5개의 연도별

표 2. 국외지 분석논문 목록

번호	연도	연구자	학술지	번호	연도	연구자	학술지
1	1998	Gourgey, C.	RE: View	16	2010	Jessup, G. M., Cornell, E., & Bundy, A. C.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2	1999	Ford, S. E.	Journal of music therapy	17	2010	Wan, C. Y., Wood, A. G., Reutens, D. C., & Wilson, S. J.	Neuropsychologia
3	2000	Ockelford, A.	Psychology of music	18	2012	Khadka, J., Ryan, B., Margrain, T. H., Woodhouse, J. M., & Davies, N.	British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4	2001	Kern, P., & Wolery, M	Journal of music therapy	19	2012	Rosenblum, L. P., & Smith, D.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5	2001	Rauschecker, J. P.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20	2014	Baker, D.	British Journal of Music Education
6	2002	Flowers, P. J., & Wang, C. H.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1	2014	Kennedy, J. M.	British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7	2002	Kern, P., & Wolery, M.	Young Exceptional Children	22	2015	Hash, P. M.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8	2002	Ockelford, A., Welch, G., & Zimmermann, S.	British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3	2015	Metell, M.	British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9	2003	Robb, S. L.	Journal of music therapy	24	2015	Park, H.Y., Chong, H. J., & Kim, S. J.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10	2004	Gougoux, F., Lepore, F., Lassonde, M., Voss, P., Zatorre, R. J., & Belin, P.	Nature	25	2016	Baker, D., & Green, L.	Research Studies in Music Educations
11	2004	Hamilton, R. H., Pascual Leone, A., & Schlaug, G.	Neuroreport	26	2016	Colgan, J. C., Bopp, M. J., Starkoff, B. E., & Lieberman, L. J.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12	2005	Pring, L., & Ockelford, A.	British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27	2016	Metell, M., & Stige, B.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13	2007	Darrow, A. A., & Movak, J.	Journal of music therapy	28	2017	Parker, E. C., & Draves, T. J.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4	2009	Matawa, C.	British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29	2017	Park, H.Y.	Musicae Scientiae
15	2009	Rokem, A., & Ahissar, M.	Neuropsychologia	30	2017	Park, H.Y. & Chong, H. J	Psychology of Music

표 3. 학술지 분야별 빈도(N=62)

발간연대	교육학		치료학		심리학		신경과학		시각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998-2001	0	0	0	2	0	1	0	1	0	1
	(0,0)	(0,0)	(0,0)	(6,7)	(0,0)	(3,3)	(0,0)	(3,3)	(0,0)	(3,3)
2002-2005	0	3	0	1	0	0	0	2	0	1
	(0,0)	(10,0)	(0,0)	(3,3)	(0,0)	(0,0)	(0,0)	(6,7)	(0,0)	(3,3)
2006-2009	1	0	0	1	0	0	0	1	1	1
	(3,1)	(0,0)	(0,0)	(3,3)	(0,0)	(0,0)	(0,0)	(3,3)	(3,1)	(3,3)
2010-2013	2	0	1	0	0	0	0	1	9	3
	(6,3)	(0,0)	(3,1)	(0,0)	(0,0)	(0,0)	(0,0)	(3,3)	(28,1)	(10,0)
2014-2017	12	3	1	1	0	2	0	0	5	5
	(37,5)	(10,0)	(3,1)	(3,3)	(0,0)	(6,7)	(0,0)	(0,0)	(15,6)	(16,7)
영역합계	15	6	2	5	0	3	0	5	15	11
	(46,9)	(20,0)	(6,3)	(16,7)	(0,0)	(10,0)	(0,0)	(16,7)	(46,9)	(36,7)
전체합계	21		7		3		5		26	
	(33,4)		(11,5)		(5,0)		(8,3)		(41,8)	

국내지와 국외지 학술논문 빈도를 분석하였다. 연도별 결과를 보면 다른 구간에 비해 2014-2017년에 국내 18편(56.3%), 국외 11편(36.7%) 가장 많은 수의 논문이 발

표되었으며, 2010-2013년 구간부터 논문 편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국내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표 4. 연구방법별 빈도(N= 62)

발간연대	조사연구		문헌연구		실험연구		질적연구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998-2001	0 (0.0)	0 (0.0)	0 (0.0)	3 (10.0)	0 (0.0)	2 (6.7)	0 (0.0)	0 (0.0)
2002-2005	0 (0.0)	2 (6.7)	0 (0.0)	0 (0.0)	0 (0.0)	4 (13.3)	0 (0.0)	1 (3.3)
2006-2009	1 (3.1)	0 (0.0)	1 (3.1)	0 (0.0)	0 (0.0)	2 (6.7)	0 (0.0)	1 (3.3)
2010-2013	7 (21.9)	1 (3.3)	2 (6.3)	0 (0.0)	1 (3.1)	1 (3.3)	2 (6.3)	2 (6.7)
2014-2017	9 (28.1)	1 (3.3)	3 (9.4)	2 (6.7)	2 (6.3)	1 (3.3)	4 (12.5)	7 (23.3)
영역합계	17 (53.1)	4 (13.3)	6 (18.8)	5 (16.7)	3 (9.4)	10 (33.3)	6 (18.8)	11 (36.7)
전체합계	21 (33.2)		11 (17.7)		13 (21.4)		17 (27.7)	

표 5. 연구유형별 빈도(N= 62)

발간연대	고찰		영향		인식 및 현황		경험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998-2001	0 (0.0)	2 (6.7)	0 (0.0)	3 (10.0)	0 (0.0)	0 (0.0)	0 (0.0)	0 (0.0)
2002-2005	0 (0.0)	0 (0.0)	0 (0.0)	4 (13.3)	0 (0.0)	2 (6.7)	0 (0.0)	1 (3.3)
2006-2009	1 (3.1)	0 (0.0)	1 (3.1)	2 (6.7)	0 (0.0)	0 (0.0)	0 (0.0)	1 (3.3)
2010-2013	2 (6.3)	0 (0.0)	4 (12.5)	1 (3.3)	4 (12.5)	1 (3.3)	2 (6.3)	2 (6.7)
2014-2017	1 (3.1)	2 (6.7)	5 (15.6)	1 (3.3)	8 (25.0)	1 (3.3)	4 (12.5)	7 (23.3)
영역합계	4 (12.5)	4 (13.3)	10 (31.3)	11 (36.7)	12 (37.5)	4 (13.3)	6 (18.8)	11 (36.7)
전체합계	8 (12.9)		21 (34.0)		16 (25.4)		17 (27.7)	

학술지 분야별로는 [표 3]과 같이 국내·외 모두 시각 전문 학술지가 26편(41.8%), 교육관련 학술지가 21편(33.4%)로 높은 빈도를 나타낸 반면, 심리학과 신경과학은 각각 3편(5.0%), 5편(8.3%)으로 낮은 편수를 보였다. 국내의 경우, 음악교육과 시각전문 학술지가 총 32편 중 30편(94.0%)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내 음악치료 학술지는 총 4편(12.5%)으로 미미하나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심리학과 신경과학 관련 학술지에는 조사된 논문이 없었다. 국외의 경우는 각 학술지 분야별로 최소 4편(13.4%) 이상 논문이 등재되어 고르게 분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간연대에 따른 연구방법별 빈도를 [표 4]와 같이 살펴보면, 전체적인 순위는 조사(32.2%), 질적(27.7%),

실험(21.4%), 문헌(17.7%)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조사연구가 17편(53.1%)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외에서는 질적연구가 11편(36.7%)으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실험연구의 경우, 국외에서 1998-2001년부터 꾸준히 연구되어 총 10편(33.3%)으로 두 번째로 많은 연구 수를 나타내는 반면, 국내에서는 2010-2013년부터 실험연구가 시작되어 총 3편(9.4%)으로 연구방법 중에서 가장 낮은 빈도수를 보였다. 이와 반대로, 조사연구는 국내 17편(53.1%), 국외(4편(13.3%))으로, 국내가 국외에 비해 4배 이상 많이 수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유형별로 논문빈도를 [표 5]와 같이 살펴보면, 음악의 '영향'을 인과적으로 설명한 논문, 즉 음악활동, 음

표 6. 연구주제별 빈도(N=62)

연구주제 발간연대	음악학습		음악중재		음악흥미 및 적성		음악점자		음악지각 및 인지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998-2001	0 (0,0)	1 (3,3)	0 (0,0)	3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3,3)
2002-2005	0 (0,0)	1 (3,3)	0 (0,0)	2 (6,7)	0 (0,0)	1 (3,3)	0 (0,0)	0 (0,0)	0 (0,0)	3 (10,0)
2006-2009	1 (3,1)	0 (0,0)	0 (0,0)	0 (0,0)	1 (3,1)	1 (3,3)	0 (0,0)	0 (0,0)	0 (0,0)	2 (6,7)
2010-2013	6 (18,8)	1 (3,3)	1 (3,1)	0 (0,0)	5 (15,6)	1 (3,3)	0 (0,0)	1 (3,3)	0 (0,0)	1 (3,3)
2014-2017	6 (18,8)	4 (13,3)	1 (3,1)	2 (6,7)	9 (28,1)	4 (13,3)	2 (6,3)	0 (0,0)	0 (0,0)	1 (3,3)
영역합계	13 (40,6)	7 (23,3)	2 (6,3)	7 (23,3)	15 (46,9)	7 (23,3)	2 (6,3)	1 (3,3)	0 (0,0)	8 (26,7)
전체합계	20 (32,0)		9 (14,8)		22 (35,1)		3 (4,8)		8 (13,3)	

표 7. 연령별 빈도(N= 62)

연령대 발간연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복합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998-2001	0 (0,0)	1 (3,3)	0 (0,0)	2 (6,7)	0 (0,0)	0 (0,0)	0 (0,0)	2 (6,7)
2002-2005	0 (0,0)	5 (16,7)	0 (0,0)	2 (6,7)	0 (0,0)	0 (0,0)	0 (0,0)	0 (0,0)
2006-2009	1 (3,1)	1 (3,3)	0 (0,0)	1 (3,3)	0 (0,0)	0 (0,0)	1 (3,1)	1 (3,3)
2010-2013	5 (15,6)	1 (3,3)	3 (9,4)	1 (3,3)	0 (0,0)	0 (0,0)	4 (12,5)	2 (6,7)
2014-2017	6 (18,8)	2 (6,7)	10 (31,3)	6 (20,0)	0 (0,0)	0 (0,0)	2 (6,3)	3 (10,0)
영역합계	12 (37,5)	10 (33,3)	13 (40,6)	12 (40,0)	0 (0,0)	0 (0,0)	7 (21,9)	8 (26,7)
전체합계	22 (35,4)		25 (40,3)		0 (0,0)		15 (24,3)	

악프로그램, 음악치료 등의 효과성을 증명하거나 선호, 만족도, 성취도 등 변인 간의 관계성을 분석한 논문이 21편(3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시각장애인 대상 음악교수 모델 제안, 음악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이론 분석 등의 ‘고찰’ 연구는 8편(12.9%)으로 가장 낮았다. 국내의 경우, 인식 및 현황 주제에서 12편(37.5%)으로 가장 높은 경향이 있으나, 국외의 경우는 해당 주제가 4편(13.3%)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반대로, 음악 경험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는 국외가 11편(36.7%)으로 국내 6편(18.8%)에 비해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간연대별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을 [표 6]과 같이

살펴보면, 음악학습(32.0%)과 음악흥미 및 적성(35.1%)이 총 62편 중 42편으로 전체의 67.1%를 차지하였다. 음악중재(14.8%)와 음악지각 및 인지(13.3%)가 15편이었고, 음악점자 관련 연구는 3편(4.8%)으로 나타났다. 음악학습, 음악흥미 및 적성, 음악점자 항목에서 국내가 국외에 비해 2배가량 높은 빈도수를 보인 반면, 음악중재, 음악지각 및 인지는 국외가 국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악지각 및 인지 분야는 뇌 영상 등으로 시각장애인의 음악정보처리를 과학적으로 측정한 연구로서,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조사되지 않았다.

연령별 분석 결과인 [표 7]을 살펴보면, 국내·외 모두

표 8. 장애특성별 빈도(N= 62)

장애특성 발간연대	전맹/저시력		중도장애		중복장애		정안인		복합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998-2001	0 (0,0)	2 (6,7)	0 (0,0)	0 (0,0)	0 (0,0)	1 (3,3)	0 (0,0)	0 (0,0)	0 (0,0)	2 (6,7)
2002-2005	0 (0,0)	5 (16,7)	0 (0,0)	0 (0,0)	0 (0,0)	1 (3,3)	0 (0,0)	0 (0,0)	0 (0,0)	1 (3,3)
2006-2009	1 (3,1)	1 (3,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3,1)	2 (6,7)
2010-2013	8 (25,0)	1 (3,3)	0 (0,0)	1 (3,3)	0 (0,0)	0 (0,0)	2 (6,3)	1 (3,3)	2 (6,3)	1 (3,3)
2014-2017	9 (28,1)	7 (23,3)	1 (3,1)	0 (0,0)	1 (3,1)	0 (0,0)	4 (12,5)	0 (0,0)	3 (9,4)	4 (13,3)
영역합계	18 (56,3)	16 (53,3)	1 (3,1)	1 (3,3)	1 (3,1)	2 (6,7)	6 (18,8)	1 (3,3)	6 (18,8)	10 (33,3)
전체합계	34 (54,8)		2 (3,2)		3 (4,9)		7 (11,0)		16 (26,0)	

성인 25편(40.5%), 아동청소년 22편 (35.4%), 복합 15편 (24.3%, 노인 0편(0.0%) 순으로 나타났다. 발간연대에 따른 연령별 논문의 빈도는 2006-2009 구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국내·외 모두 노인 대상 연구는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특성별 논문빈도를 [표 8]과 같이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장애정도인 전맹/저시력이 34편(54.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도장애와 중복장애는 각각 2편(3.2%)과 3편(4.5%)으로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국내 연구에서는 정안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6편(18.8%)으로 국외 1편(3.3%)에 비해 6배 가량 많은 반면, 중복장애나 복합장애에서는 국외가 국내에 비해 2배가량 높은 비율을 보였다.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20년간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총 62편의 논문을 내용 분석 하였다. 연구의 주요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학술논문의 편수를 비교할 때, 국내 32편, 국제 30편으로 유사한 빈도로 분석되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시각장애와 음악 관련 연구가 국내에

서는 수행되지 않다가, 최근 10년간 국외보다 높은 연구 성과를 낼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발간연도별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외 모두 2010-2013년부터 논문 편수가 증가하였고, 특히 최근 4년 동안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전까지는 시각장애를 대상으로 한 음악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최근 10년간은 시각장애인 대상 음악 활용의 중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다. 특히, 뇌공학의 발달로 시각장애인의 음악 정보 처리 능력의 우수성이 신경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이들에게 있어 음악의 역할과 가치가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각이 주 매개가 되는 음악의 활용은 다른 분야에 비해 인지적 어려움이 적으며, 일반 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의미 있는 소통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에게 교육적, 기능적, 여가적, 사회적 수단이 될 수 있는 음악에 대한 연구가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지 분야별 분석에서는 국내의 경우, 교육학 및 시각전문 학술지의 비중이 높은 반면, 국외는 분야별 편수가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는, 해당 학술지의 고유한 특성과 수행한 연구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에, 특정 학술지에만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해당 분야의



학문적 다양화, 특성에 따른 분산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학 관련 학술지와 시각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살펴보면, 각 분야별로 특화된 주제들이 다루어지기보다는, 특수교육을 배경으로 한 연구자가 시각장애학생 대상 음악 현황, 실태, 인식 조사를 시행한 연구의 빈도가 높았다. 따라서, 향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연구에서는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이며, 구체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외 모두 시각전문 학술지에서 발간되는 논문이 전체 학술지 분야의 1/3 이상을 차지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분석된 시각전문 학술지는 국내 1개(시각장애연구), 국외 2개(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British Journal of Visual Impairment)가 있었으나, 이와 유사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학 학술지는, 특수교육, 음악교육, 음악공학 등 7개에 달했다. 이에 비해 출판된 논문 수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교육학과 시각전문 학술지가 동일하게 전체 학술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고, 국외에서는 시각전문 학술지가 교육학에 비해 2배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는 시각전문 학술지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학술지로서 위상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시각전문 학술지로서 해당 분야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연구는 연구대상, 변인, 중재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학술지에 게재된다. 즉, 연구자가 관심을 두는 연구주제나 방향에 따라 게재할 학술지 분야를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악활동을 구성할 때, 음악교과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수업에 원활하게 참여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는 음악교육[31] 혹은 특수교육[13] 분야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다. 동일한 음악 활동 연구내용에서 참여하는 대상의 심리적, 정서적 변화와 기법을 중점적으로 기술할 경우에는 심리학[32] 혹은 치료학[33] 학술지에, 음악 자체에 대한 변별 및 처리 과정의 과학적 근거를 밝히고자 할 때에는 신경과학 학술지[2]에 게재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각장애와 음악 연구는 다양한 분야로의 접근이 가능한 융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음악교육이나 시각전문 학술지

뿐만 아니라 치료, 심리, 신경학 등 여러 전문분야에도 게재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학문적 배경의 연구자들이 시각장애와 음악 연구의 융복합적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방법에 대한 논문편수를 비교한 결과, 국내 논문의 경우 조사연구의 편중이 높아 국외에 비해 4배 이상 수행된 반면, 실험연구는 3분의 1, 질적연구는 2분의 1 가량으로 낮은 편수를 나타냈다. 국내의 조사연구의 활성화는 시각장애와 음악에 관련하여 현실의 상황을 반영한 기술적(descriptive) 설명을 제시하고[34], 시각장애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우선하여 대상에 적합한 음악 제공을 목적으로 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조사연구[35]를 수행한 것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다만, 상대적으로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임상집단인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음악 경험을 심도 있게 탐색하는 질적연구[36], 혹은 음악을 통해 변화된 행동을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실험연구[37]의 중요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연구방법 중 문헌연구가 국내·외 모두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편수를 보였다. 이는 최근 20년간 빈번하게 다뤄진 연구방법뿐만 아니라, 다소 관심이 미미했던 역사, 철학, 개발, 고찰 등의 문헌 연구방법을 사용한 접근이 시각장애와 음악 관련 학문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연구유형별 논문빈도에서 음악이 시각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초점화한 논문이 국내·외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시각장애와 음악에 관한 문헌고찰을 실시한 선행연구[16]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당 문헌에서는 음악 요소들의 역할과 효과성 등 구체화되고 체계화된 영향력이 주요 변인으로 서술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빈번히 나타난 음악의 영향력은, 음악의 기능적 사용에 따른 치료적 혹은 교육적인 혜택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음악을 임상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음악치료는 음악이 시각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강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주제별 분석에서 국내의 음악중재, 음악지각 및 인지 연구가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

악중재 국내 연구는 총 2개로 모두 국악을 중심으로 한 음악치료를 분석한 논문이다[37][49]. 국외 논문들은 음악을 통해 인지, 행동, 정서, 사회 영역 향상의 효과를 증명한 것이다[33][47][50-5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악은 시각장애인들이 즐기고 또, 장애의 장벽을 비교적 적게 느끼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치료 및 재활의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중재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잔존 감각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악지각 및 인지 분야는 국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외에서만 뇌 영상을 통해 음악정보처리 과정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시각장애인, 특히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음악에 대한 지각 및 인지 능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뇌 가소성(brain plasticity)으로 인한 보상 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다[55]. 이처럼 시각장애인은 시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감각을 잔존 감각을 통해 획득하며, 이 같은 보상 대체 감각은 시각을 통해 습득할 수 없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적 정보를 획득할 수 없으나 타감각을 활용하는 능력이 삶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달되므로, 음악을 매개로 하는 감각통합적 접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연구대상의 연령별 빈도는 국내 및 국외 학술지가 모두 성인과 아동청소년이 높게 나타난 반면, 노인 대상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각장애노인은 시각 상실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제약과 동시에 노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취약한 집단이다[38]. 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오면서[39], 여러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음악이 유용한 도구로 제안될 수 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음악은 단순한 여가 활동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통합되어 소속감을 가지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된다[40]. 더욱이 시각장애노인에게 음악은 잔존감각을 적극 활용할 수 있고, 음악 활동을 통해 부적 정서 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즉각적인 보상감을 획득할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 따라서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

려움을 극복하고 공감과 소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각장애노인 대상 음악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의 장애특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외 모두 중도 및 중복장애에 대한 연구가 극히 드물게 나타났다. 중도시각장애인 대상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이들의 음악활용에 대한 조사연구 1편[34], 국외에서는 선천성 전맹과 후천성 전맹의 소리지각을 비교한 연구 1편[41]이 유일하다. 국내 시각장애인의 90.8%를 차지할 만큼 그 수가 많은 중도시각장애인은[42] 삶의 과정 중에 시각장애를 입게 되어 이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43]. 장애적용 과정에서 경험하는 좌절감, 상실감, 우울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개입을 위해, 시각 상실에 따른 대체 감각인 청각 자극 즉, 음악을 제공하고, 이들의 보행 및 방향정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탐색하는 일차적 감각 정보로서 청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44] 음악을 매개로 한 체계적인 훈련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최근 20년간 음악과 관련된 시각중복장애 연구는 국내에서는 1편으로 이들의 연구경험에 대한 의미를 해당 학생의 어머니와 음악지도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통해 질적분석을 실시하였다[45]. 국외는 2편으로, 시각중복장애 학생이 음악을 통해 가질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안인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고[46], 또 하나는 단일대상연구로 시각중복장애여성의 행동문제에 음악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 밝힌 연구이다[47]. 시각중복장애 학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48]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시각중복장애를 대상으로 한 음악 연구는 시급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시각중복장애인 대상의 음악활동을 위해서는 다감각 체험을 통한 직접적인 경험(hands-on experience) 기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음악을 통한 폭넓은 경험은 시각중복장애인들이 음악외적 정보들을 수용하고 학습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음악적 자극은 정서 발달이나 감각 정보 습득, 교육 등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치료나 재활 등의 임상 현장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에 후

속 연구는 음악의 비언어적 특성이 언어를 통해 전달할 수 없는 감각 혹은 정서의 섬세하고 내밀한 부분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학술지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시각장애와 음악 관련 학술논문들을 선정하여 학술지 분야, 연구방법, 연구유형, 연구주제, 연령, 장애특성별 분석이 이루어졌다. 한편, 분석대상 논문의 특성과 지면상의 한계로 인해 논문 저자의 자격과 경력, 연구대상의 수, 측정도구, 결과 등 논문의 구체적 내용을 정교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의 특성과 수집방법을 포함한 명료한 연구절차, 대상의 구체적 배경 정보, 연구설계 등에 대한 틀을 구성하여 보다 충분한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년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발간연대 별로 4년씩 5개의 급간으로 묶은 후, 설정된 5개의 발간연대 급간을 기준으로 다른 주요 요인들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대별 학술논문의 추이를 살피는 데에는 용이하였으나, 국내 연구의 경우 시각장애 관련 학술논문은 2006-2009 구간에 처음 발간되어, 그 이전인 1998-2001, 2002-2005에는 0편으로 구간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 국내 연구의 추이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실제 게재 논문이 나타난 연도를 기점으로 구간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은 치료적, 교육적, 여가적, 심리사회적 등 여러 분야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장애인 등 시각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 목적에 맞게 음악을 적용하는 실질적인 방법 고안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시각장애 관련 교육자나 임상가 및 연구자들은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을 폭넓게 체험하고 활용하며, 기능적 행동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음악은 청각적 복합체로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보상 대체 감각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국내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J. P. Rauschecker, "Cortical plasticity and music,"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Vol.930, No.1, pp.330-336, 2001.
- [2] R. H. Hamilton, A. Pascual-Leone, and G. Schlaug, "Absolute pitch in blind musicians," *Neuroreport*, Vol.15, No.5, pp.803-806, 2004.
- [3] A. Ockelford, L. Pring, G. Welch, and D. Treffert, *Focus on music: Exploring the musical interests and abilities of blind and partially-sighted children with septo-optic dysplasia*,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2006.
- [4] F. Gougoux, F. Lepore, M. Lassonde, P. Voss, R. J. Zatorre, and P. Belin, "Neuropsychology: Pitch discrimination in the early blind," *Nature*, Vol.430, No.6997, p.309, 2004.
- [5] Z. Eitan, E. Ornoy, and R. Y. Granot, "Listening in the dark: Congenital and early blindness and cross-domain mappings in music," *Psychomusicology: Music, Mind, and Brain*, Vol.22, No.1, pp.33-45, 2012.
- [6] A. A. Darrow and J. Novak, "The effect of vision and hearing loss on listeners' perception of referential meaning in music," *Journal of Music Therapy*, Vol.44, No.1, pp.57-73, 2007.
- [7] A. R. Walker, "Mental imagery and musical concepts: Some evidence from the congenitally blind,"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No.85, pp.229-237, 1985.
- [8] E. Walker, "Emotion recognition in disturbed and normal children: A research not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22,

- No.3, pp.263-268, 1981.
- [9] C. K. Madsen and A. A. Darrow,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aptitude and sound conceptualization of the visually impaired," *Journal of Music Therapy*, Vol.26, No.2, pp.71-78, 1989.
- [10] H. Y. Park, H. J. Chong, and S. J. Kim, "A comparative study on the attitudes and uses of music by adults with visual impairments,"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Vol.109, No.4, 2015.
- [11] 신연서, 오지향, "시각장애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의 음악적성 연구," *시각장애연구*, 제25권, 제4호, pp.165-181, 2009.
- [12] 신연서, 이해균, "시각장애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의 음악적성 연구," *시각장애연구*, 제25권, 제4호, pp.165-181, 2009.
- [13] 신연서, 이해균,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음악 활동경험과 음악흥미도 관계 연구,"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제17권, 제2호, pp.95-121, 2016.
- [14] 임형진, 박순희, "시각장애인의 음악성취도에 대한 음악흥미와 음악적성 연구," *시각장애연구*, 제29권, 제2호, pp.217-228, 2013.
- [15] 박혜영, 정현주, "정서 유도 음악에 대한 시각장애인과의 정서반응의 음악 정서 반응 차이," *시각장애연구*, 제31권, 제3호, pp.1-17, 2015.
- [16] P. A. Coddling, "Music therapy literature and clinical applications for blind and severely visually impaired persons: 1940-2000," In D. S. Smith (Ed.), *Effectiveness of music therapy procedures: Documentation of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Silver Spring, MD: The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Inc., pp.159-198, 2000.
- [17] A. L. Corn and G. L. Bailey, "Profile of music programs at residential schools for blind and visually impaired students,"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Vol.85, No.9, pp.379-382, 1991.
- [18] D. G. Herlein, "Music reading for the sightless: Braille notation," *Music Educators Journal*, Vol.62, No.1, pp.42-45, 1975.
- [19] P. A. Coddling, *Music in the education /rehabilitation of visually disabled and multihandicapped persons: A review of literature from 1946-1987*, Documentation of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pp.107-134, 1988.
- [20] L. C. Wheeler, K. Floyd, and H. C. Griffin, "Spatial organization in blind children," *RE:view*, Vol.28, pp.177-181, 1997.
- [21] W. B. Davis, K. E. Gfeller, and M. H. Thaut, *An introduction to music therapy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Inc. Silver Spring, MD., 2008.
- [22] 임안수, *시각장애 교육 기초*, 서울: 파오디, 2000.
- [23] 강종구,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관한 국제전문학술지(JVIB와 BJVI)의 연구 경향 고찰," *시각장애연구*, 제31권, 제3호, pp.107-126, 2015.
- [24] 이인수, 윤기현, "수업지도성 연구동향 분석: 최근 20년(1996-2016)간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연구*, 제34권, 제2호, pp.57-84, 2017.
- [25] 이윤주, "집단상담의 치료적 요인에 관한 연구 동향: 1994-2013년 국내·국제 학술지 논문 비교," *상담학연구*, 제16권, 제1호, pp.51-71, 2015.
- [26] 김영실, "GIM (Guided Imagery and Music) 에서 GIM 치료사의 음악 선택에 관한 내러티브 문헌 고찰,"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제11권, 제1호, pp.39-62, 2014.
- [27] 정동훈, "국내 보조공학 연구동향 분석: 1998-2008 년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학술지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제52권, 제1호, pp.97-124, 2009.
- [28] 손지영, 정소라, 김동일, "국내 장애학생 고등교육의 연구동향과 과제," *특수교육학연구*, 제45권, pp.157-178, 2011.
- [29] 정승원, "고용관련 환경요인이 장애수용에 미치

- 는 영향,” 제3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179-208, 2011.
- [30] 채구묵, “실업급여가 실업, 경제활동참가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OECD 19 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4호, pp.319-342, 2009.
- [31] 김미정, 박휴용, “시각장애 음악전공자들의 회고를 바탕으로 한 음악 교수방법론 탐색,” 음악교육연구, 제42권, 제3호, pp.151-182, 2013.
- [32] H. Y. Park, “Finding meaning through musical growth: Life histories of visually impaired musicians,” *Musicae Scientiae*, Vol.21, No.4, pp.405-417, 2017.
- [33] S. L. Robb, “Music interventions and group participation skills of preschoolers with visual impairments: Raising questions about music, arousal, and attention,” *Journal of Music Therapy*, Vol.40, No.4, pp.266-282, 2003.
- [34] 양지혜, 박혜영, “중도시각장애인의 음악 활용,”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제13권, 제1호, pp.41-60, 2016.
- [35] 박한나, 이해균,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음악 감상 교육 실태와 선호도 연구,” 시각장애연구, 제29권, pp.1-25, 2013.
- [36] 이보림, “시각장애인에게 음악하기의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 음악교육공학, 제23권, pp.137-156, 2015.
- [37] 남인숙, 정광조, 최애나, “국악중심 음악치료가 시각장애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제 9권, 제4호, pp.53-74, 2013.
- [38] 박수경, 이익섭, “시각장애노인의 사회통합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pp.5-34, 2005.
- [39] 임종호, “시각장애 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시각장애연구, 제33권, 제4호, 2017.
- [40] H. Y. Park, H. J. Chong, and S. J. Kim, “A comparative study on the attitudes and uses of music by adults with visual impairments,”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Vol.109, No.4, pp.303-316, 2015.
- [41] C. Y. Wan, A. G. Wood, D. C. Reutens, and S. J. Wilson, “Early but not late-blindness leads to enhanced auditory perception,” *Neuropsychologia*, Vol.48, No.1, pp.344-348, 2010.
- [42] Y. C. Byeon, *2005 Survey on disability*,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6.
- [43] G. M. Jessup, E. Cornell, and A. C. Bundy, “The treasure in leisure activities: Fostering resilience in young people who are blind,”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Vol.104, No.7, pp.419-430, 2010.
- [44] D. Molloy-Daugherty, *Rhythmic auditory-motor entrainment of gait patterns in adults with blindness or severe visual impair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Lawrence, KS, 2013.
- [45] 신연서, 이해균, 김진희, “시각중복장애학생의 연주경험의 의미,” 시각장애연구, 제32권, 제2호, pp.1-25, 2016.
- [46] A. Ockelford, G. Welch, and S. Zimmermann, “Focus of Practice: Music Education for Pupils with Severe or Profound and Multiple Difficulties—Current Provision and Future Need,” *British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29, No.4, pp.178-182, 2002.
- [47] S. E. Ford, “The effect of music on the self-injurious behavior of an adult female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Music Therapy*, Vol.36, No.4, pp.293-313, 1999.
- [48] 이미선, 김기창, 김정현, 김호연, 진창원, “시각장애아교육 개선 방안 연구: 조기발견, 진단평가, 배치, 시각중복장애아 교육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연구, 제26권, 제4호, pp.285-314, 2010.
- [49] 김은주, “시각장애학교 학생을 위한 국악치료 실태 연구,” 국악교육연구, 제11권, 제2호, pp.69-91,

2017.

- [50] Gourgey, "Music therapy in the treatment of social isolation in visually impaired children," Vol.29, No.4, pp.157-162, 1998.
- [51] P. Kern and M. Wolery, "Participation of a preschooler with visual impairments on the playground: Effects of musical adaptations and staff development," Journal of Music therapy, Vol.38, No.2, pp.149-164, 2001.
- [52] P. Kern and M. Wolery, "The sound path: Adding music to a child care playground," Young Exceptional Children, Vol.5, No.3, pp.12-20, 2002.
- [53] M. Metell, "A great moment... because of the music: An exploratory study on music therapy and early interaction with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and their sighted caregivers," British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Vol.33, No.2, pp.111-125, 2015.
- [54] M. Metell and B. Stige, "Blind spots in music therapy. Toward a critical notion of participation in context of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Vol.25, No.4, pp.300-318, 2016.
- [55] Z. Eitan, E. Ornoy, and E. R. Y. Granot, "Listening in the dark: Congenital and early blindness and cross-domain mappings in music," Psychomusicology: Music, Mind, and Brain, Vol.22, No.1, p.33, 2012.

저 자 소 개

박혜영(Hye Young Park)

정회원



- 200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학사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음악치료교육) 석사
- 201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치료학 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음악치료전공 조교수  
<관심분야> : 감각장애, 음악정서, 음악중재

조미란(Mi Ran Cho)

정회원



- 2009년 2월 : 동서대학교 청소년상담심리전공 졸업(문학학사)
- 2012년 8월 :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음악치료전공 졸업(음악치료학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음악치료전공 박사과정
- 2015년 1월 ~ 현재 : 아이원의원 음악치료사  
<관심분야> : 장애아동과 부모, 오르프 음악치료

윤은정(Eun Jeong Yoon)

정회원



- 2003년 2월 : 경성대학교 음악학사
- 2016년 8월 : 고신대학교 음악치료학 석사
- 2018년 2월 : 고신대학교 음악치료학 박사 재학
- 2017년 8월 ~ 현재 :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수영종합 사회복지관 가족상담센터 음악치료사  
<관심분야> : 신경학적 음악치료, 장애인 예술 활동